

응급실에서 만난 하나님

몇 해 전 주일 예배 설교를 다 마치지 못하고 앰블런스를 타고 병원으로 가야했던 때가 있었다. 무슨 영문인지 몰랐으나 가슴이 답답히 조여 오며 숨을 쉴 수 없었기 때문이다. 온몸은 땀으로 범벅이 되었고 얼굴은 창백하게 되었다. 응급실에 도착한 후 여러 간호사들과 의사들이 무엇이 문제인지 열심히 조사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한 의사가 나에게 심장에 심각한 이상이 있으니 지금 곧바로 수술실로 가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만일 진찰 중에 문제가 생기면 곧 가슴을 열고 심장 수술을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하며 종이에 싸인을 하라고 한다. 나는 도데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도 모르고 하라는 대로 싸인을 하고 곧장 수술실로 향했다. 그곳에서 조금 기다리면서 간호사들이 여기저기에 알지도 못하는 전기선을 연결했고 색깔이 나는 액체를 심장 쪽으로 집어넣어서 문제를 관찰한다고 한다. 그러면서 나를 혼자 두고 모두 수술실에서 나갔다. 모든 준비를 마치고 의사를 기다리는 시간이었다. 한 10여 분 동안의 시간이었는데 나에게 그 시간은 정말 오랜 시간이 지나가는 것과 같았다. 그 10여분 동안 나는 혼자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어 왔다. 아무도 나와 함께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나의 자녀도 아내도 또한 가까이 지나던 성도들도 내가 거기에 있으리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나에게 따뜻하게 말해줄 수 있는 사람도 없었다. 그리고 또 다른 생각은 이대로 내가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었다. 그 때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한가지 밖에 없었다. 기도하는 것뿐이었다. 어떠한 기도였는가 하면 그저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였다. 내가 가지 있던 것도 중요하지 않았고, 내가 해 놓았다고 하는 것들도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 또한 내가 생각하던 꿈도 그 시간에는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붙잡고 있었다고 여기던 것들도 더 이상 잡을 수 없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는 것이고 아니면 병원 신세를 지며 하나님께 고쳐주시기를 바라는 것뿐이었다. 바로 그 때 담당 의사가 들어와 얼마간 조사를 하더니 나에게 다행이라고 말한다. 심장의 문제가 아니라 갑상선의 문제로 심장이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했다. 그 후 몇 개월 동안 심장약과 갑상선 약을 먹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히 회복하게 되었다.

그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었다. 그 말씀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로마서 14장 8-9절) 이다. 나에게 영원한 것이 없고 자랑할 것도 없으며 실은 가진 것도 없다는 깨달음이다. 하나님께서 그 귀한 것을 깨달은 사도바울의 고백을 나에게 들려주신 것이다. 죽을 수도 있는 병원 응급실의 침대에서 새롭게 깨닫게 하여 주셨다.

이 말씀으로 살아간다면 자랑 할 것이 하나뿐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이 나의 자랑이다. 예수님 때문에 살게 되었고 세상에서 예수님 사랑의 덩으로 살기 때문이다. 갈 길을 알지 못하여 방황하면서 살 수 있었지만 예수님 때문에 순례자의 길을 걷게 하시기 때문이다. 죽을 길을 걸었지만 이제 더 이상 그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을 가며 주위에 있는 어두움의 길을 가는 친구와 가족들을 인도하기 때문이다. 새로운 교회를 섬기며 이것이 더욱 분명해진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살며 높낮이를 경험하게 하시며 내가 살아 있음을 확인시키신다. 꿈틀거리게 하신다.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이다. 늘 깨닫게 하시며 또 다시 살아나게 하신다. 하나님은 정말 좋은 분이시다.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주님은 오늘도 믿음으로 사는 인생 과정을 통하여 복된 것을 경험하게 하시기 때문이다. 우리 모두 고백하자. **“주님 사랑합니다. 답답하고 괴로울 수도 있는 나의 삶에 생명을 주셔서요. 주님 고맙습니다”**